



사모블레싱 나잇이 OC교협 주관으로 약 150명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을 깨운 다니엘기도회가 미주를 찾아온다.

사모님들 축복합니다! '사모블레싱 나잇'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주관으로 8회째 맞아

“매년 섬겨주시는 사랑으로 사모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에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에서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회장 이호우 목사) 주관으로 150여 명의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모블레싱 나잇'이 열렸다. 금년 사모블레싱은 OC교협, 약 30여 교회와 이사들의 후원으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잔치로 진행됐다.

이호우 목사는 아가서 1장 1-4절을 본문으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이라고 설교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사랑이야말로 어떤 포도주보다 값진 것이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십자가 사랑에 취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모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사모블레싱에 참석한 정한나 사모는 “사모들을 위로하는 뜻깊은 자리를 매년 마련해 주시는 수고와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민교회 하면서 지친 사모님들이 큰 힘을 얻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호우 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가주 지역 작은 교회 사모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귀한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모블레싱은 1부 예배와 2부 만찬으로 이어졌다. 예배는 박재만 목사의 인도로 시작돼 노상철 목사 기도, 이소연 사모 성경봉독, 이은수 목사-이혜영 사모 찬양, 이호우 목사 설교, 남가주목사장로부부 합창단 특송, 딜리버런스 공연, 홍수산 선생이 이끄는 난타공연 순으로 진행됐고 정효남 목사의 광고, 박학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는 조한영 목사의 사회로 만찬과 친교시간이 이어졌다. 한석호 목사와 서양훈 장로가 찬양과 율동, 오락 시간을 이끌었다. 이어 조형수 목사가 감사 인사하고 김기동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행사가 끝났다.

교회의 연합, 다음 세대의 부흥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다니엘기도회·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해외투어가 8월 28일(월), LA 지역은 한인타운 가든스윗호텔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OC 지역은 나침반교회에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등록비와 교재, 식사가 모두 무료이지만 www.danielprayer.org에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관련기사 3면>

2016년 약 3,200여 교회가 함께 참여한 '다니엘기도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대안적 교육을 표방하는 '꿈이있는미래'가 함께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영적인 회복과 목회철학 공유, 실제적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는 컨퍼런스이다. 이 컨퍼런스는 지난 3월 한국에서 시작돼 전국을 투어하며 무려 2,300여 교회 3,4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은호 목사(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꿈이있는미래 대표, 오로교회 담임)의 강의로 시작된다. '건강한 목회,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는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강의이다. 이어지는 점심 시간에는 오로교회 및 다니엘기도회, 꿈이있는미래 사

역 박람회도 진행된다. 다음 순서로 다니엘기도회(주성하 목사, 다니엘기도회 팀장)와 꿈이있는미래(주경훈 목사, 꿈이있는미래 소장)의 사역 소개 및 컨설팅이 진행된다. 각 교회에 가장 필요한 예배와 기도회의 회복,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방법론이 제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목회 철학 공유의 시간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하는 연합의 장이 된다는 것이 가장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많은 목회자들은 한결 같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뜨거운 현장이었다”고 증거했다.

특히 이번 LA와 OC를 중심으로 한 미국 서부지역 컨퍼런스는 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인 목회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해외 한인 목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해외 한인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문의) 213-284-9596

북한 억류 약 2년 7개월 만에 임현수 목사 석방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억류하고 있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토론토큰빛교회)를 병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2017년 8월 9일 부 판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하

여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받고 교화 중에 있던 캐나다 공민 임현수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되었다”고 전했다. 임 목사는 현재 북한 내 병원에 머물고 있다.

캐나다 다니엘 장(Daniel Jean) 국가안보보좌관이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특사로 8일 평양에 도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현수 목사의 석방 교섭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가 북한에 억류되고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받자, 그가 목회했던 토론토큰빛교회 등 캐나다 교계와 한인들은 북한에 임 목사 석방을 촉구하며 기도회를 꾸준히 열어 왔다. 김진영 기자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전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히브리식 사고 및 체현을 통해보는 테필린(Tefillin) 세미나

“약속의 땅을 찾아 갑시다”

한국교회의 미래 대안을 형성하고 있는 히브리식 사고 및 체현을 통해 2세와 3세의 차세대 양육원리와 비전을 신명기를 통해 보게됩니다.

특징

1. 히브리식 사고(3통 사고)로 쉽게 성경 원전해석
2. 히브리식 체현(5특 체현)으로 성경 원전해석
3. 미주 최초로 테필린 세미나를 통해 수천년간 내려온 유대인 교육에 숨겨진 비밀을 배움

- **강사** : 강신권 박사(토브성경원전연구소 원장, 테필린 국제강사)
- **일시** : 2017년 9월 4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일보 컨퍼런스룸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교재비** : 무료증정
- **인원** : 20명 (*자리가 한정되어 있음으로 예약 바랍니다.)



강사: 강신권 박사
 Dr. Paul Kang

▪ **주관**: 토브성경원전 연구소(Tov Bible Institute) ▪ **문의**: (213)739-0403, (213)434-1170



남가주 한인 루터교회 목회자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후예들 정체성 세우자

남가주 한인 루터교회 목회자 세미나 열려

남가주 지역 한인 루터교회 목회자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목회자 세미나를 “종교개혁과 한인 루터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장소는 캘리포니아 주 모레노밸리 은총교회(김정환 목사)였다.

참석자들은 7월 28일(금)부터 29일(토) 양일간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종교개혁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루터교회에서 목회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고민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강사를 맡은 정진오 박사(일리노이 주 시온루터교회 담임)는 “루터란의 정체성”이란 강의에서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이전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에 눌러앉아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종교개혁 이후 그 자유와 해방이 방종과 방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한한 사건이었다. 여기에 루터

란의 정체성의 핵심이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루터란의 정체성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만으로 (sola fide, sola gracia, sola scriptura)’를 통해 신앙의 중심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임”을 역설했다.

문상의 박사(컨플디아대학교 퇴임 교수)는 “루터의 95개 논제와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루터의 95개 논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닌, 오랫동안의 중세 교회의 부패와 이에 대한 점진적 저항이 루터의 95개 논제로 분출되었음”을 강조했다.

홍영환 목사(LA 중앙루터교회)는 “미주 한인 루터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루터교회 목회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격려하고

치유해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박담 교수(컨플디아대학교)는 “계속적인 종교개혁: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미국 루터교회(LCMS) 초대 총회장인 월터(C. F. W. Walther) 목사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명제를 소개하며, 루터교회의 율법과 복음에 기초한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행사를 주관한 남가주 한인 루터교회 목회자 모임의 의장 문현봉 목사(복음루터교회)는 세미나에 앞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해에 특별히 한인 루터교회 목회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개혁의 후예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향후 종교개혁 기념 예배와 학술강연을 통해 종교개혁의 참 정신과 루터교회를 소개하는 일에 힘을 예정이다.



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

선한목자장로교회 문일명 목사 위임식

선한목자장로교회 문일명 담임목사가 미국장로교(PCUSA) 샌게브리엘노회로부터 위임목사로 인준됨을 선포하는 예배가 있었다. 지난 8월 6일(주일) 로렌하이츠에 있는 교회 본당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임예배가 거행됐다.

위임식은 원영호 목사(새장로교회)의 사회로 시작돼 에버그린 합창단이 찬양하고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은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위임식은 노회장인 프라이드 윌슨 목사가 진행했으며 천방욱 목사, 홍명의 목사(남가주·와와이대회 서기)가 축사하고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문일명 목사가 답사를 전한 후, 교회가 분열되는 과정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온 행정전권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문 목사가 위임목사가 되면서 행정전권위원회는 오는

노회에서 해산될 예정이라 한다.

문일명 목사는 “지난 몇 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지나왔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한다”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에서 이 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부르시겠다는 말씀을 믿는다”고 했다.

문 목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이 교회 설교목사를 맡아 온 천방욱 목사는 “그동안 목사 없는 양치럼 해맨 본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은 문 목사를 보내 주셨다. 이제 주님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양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권면했다.

이 교회 박기호 장로는 “고대하던 목자가 왔다.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 드린다. 위임식에 축하하고자 오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침례교회가 중보기도 축제를 4주간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침례교회 중보기도 축제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2017년 중보기도 축제가 열렸다. 지난 6일을 시작으로 매주 일마다 4주 동안 중보기도에 관해 배우고 기도하며 이 행사를 통해 부흥과 치유를 사모한다.

지난 6일에는 1강 자아의 회복이

란 주제였으며 2강은 부흥의 회복, 3강은 권세의 회복, 4강은 비전의 회복 등이 주제다. 첫 행사 때에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 체육관을 가득 채우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 중보기도했다.

셀비 권 기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종려교회, 남가주밀알, 나눔선교회 연합예배 드려

종려교회, 남가주밀알선교단, 나눔선교회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예배자들을 위해 매달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찾아와 식사로 섬기고 있다. 지난 7월 마지막 화요일 예배 때에는 나성제일교회(김문수 목사)의 최미영 권사 등 성도들이 나물비빔밥으로 식사를 대접했다.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됐고 나성제일교회 이연주 목사가 ‘친구’(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남가주 지역 3개 단체가 연합해 섬김과 사랑의 예배를 드렸다.

리스도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의 친구”라고 전했다.

한편, 남가주밀알선교단은 매주 화요일에는 LA의 한길교회(노진준

목사)에서, 목요일에는 OC의 주님의빛교회(주혁로 목사)에서 예배를 드린다.

셀비 권 기자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안수집사·권사 임직 감사 예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전 1:12)

하나님의 은혜로 남가주 벨엘교회는
아래와 같이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격려와 기쁨이 되겠습니다.

- 오병익 담임목사 외 교우일동 -



오병익 담임목사



안수집사
김낙훈, 이일호
임춘택, 조한진

권사
김선옥, 박명란, 박명숙, 박소연
원혜경, 조남희, 진혜원

일시 : 8월 13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남가주 벨엘교회 예배당(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문의 : T.(714)886-2562

“예배와 기도로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김은호 목사 인터뷰]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20년 전, 아파트 단지의 작은 상가에서 학생 2명과 시작된 교회가 있다. 지금은 매 주일 예배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1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한국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온 열방을 섬기고자 뛰고 있는 교회가 있다. 바로 서울 오펴교회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은호 목사를 만나보았다.

오펴교회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펴교회는 이제 개척한지 30년이 되어가는 교회로,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고자 뛰고 있는 젊은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펴교회의 폭발적 부흥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운 교회의 5대 비전도 이와 같은 본질에 충실하여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라는 첫 번째 비전은 모든 비전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복음이 드러나고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예배가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오펴교회하면 ‘다니엘기도회’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기도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다니엘기도회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이제 거의 다 알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접해보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기도회는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연합기도회로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각 교회의 현장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다니엘기도회는 사실 행사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19년 전, 저는 담임목회자로서 목회에 한계와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개척 이후,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산에 올라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교인들이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21일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된 기도회가 다니엘기도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올해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다니엘기도회의 행보를 보면 ‘한국교회’, ‘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다니엘기도회를 시작하기 전, 저는 오펴교회를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로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저를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기도회를 시작하고 많은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 선포는 헛된 것이 아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 즈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함께 이 기도회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교회들에게 다니엘기도회를 소개했고 38개 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한결 같았습니다. 오펴교회 현장에서 느끼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주변의 교회들에게 참여하도록 권면을 하였는데, 2014년에는 264개 교회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전의 기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로 섬기게 해 달라는 그 기도가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기도회, 오펴교회만의 기도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해외교회를 섬기는 기도회가 되어야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2015년에는 1,076개 교회가, 작년인 2016년에는 3,202개 교회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모습

특 별 히 올리는 ‘열방과 함께 하는 2017 다니엘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슬로건을 바꾸고,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만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7백여 명의 봉사자, 4천여 명의 기도 서포터즈들과 함께 다니엘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까지 7,400여 교회가 참여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김은호 목사

서 국내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는데,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라는 주제로 목회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다니엘기도회에 대한 사역 설명회와 박람회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니엘기도회뿐만 아니라 ‘꿈이있는미래’라는 교육 사역을 소개해 드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큼니다. 꿈이있는미래란 저희 교회가 교육을 통해서 섬기고자 세운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기관으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해외 한인교회들에게 다니엘기도회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한 연합을 알리고, 꿈이있는미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것이죠. 저희의 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일 뿐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 연합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것이기에 항상 기쁘고 가슴이 뻥뻥합니다.

작년에도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참여한 교회들과 열악한 예배 환경 가운데서 몇 명의 성도님들이 모인 시골 교회도 함께 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 섬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행사로서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 예배로서 함께 연합할 생각에 벌써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교회와 본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연합과 부흥은 기도와 말씀, 다음 세대를 끌어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연합과 부흥은 한 번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와 예배,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개교회주의를 탈피하여 온 열방이 함께 연합하여 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과 섬기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미국까지 오셔서 컨퍼런스를 진행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준비하게 되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연합과 다음 세대의 부흥,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 그룹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기도회가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으로 해외 교회를 섬기고 연합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비전입니다. 이미 해외 컨퍼런스를 계획하기 전, 2017년 3월부터 6월말까지 10차에 걸쳐

한국교회와 해외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개교회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연합과 나눔, 그리고 지속적인 동역을 이어가기 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신 이유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섬기게 하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제요? 10년만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밤에 날라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미주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목회자 아버지학교에 초대합니다

목회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과 교회가 산다!

제13기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나성서부장로교회(담임 서건오 목사)에서 개설됩니다. 사모님, 성도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을 저희 목회자 아버지학교에 보내주세요. 목회자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살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13기(6209)차

일시 | 8월 21일(월) 오후 5:00~오후 9:00
8월 22일(화) 오전 9:00~오후 9:00
8월 27일(주) 오후 5:00~오후 9:00

장소 | 나성서부장로교회(담임 서건오 목사)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등록 | 1인당 참가비 \$120 (교재 및 저녁식사 제공)

도와주신 분: 권준 목사(미주아버지학교 지도목사)_시애틀형제교회, 김경렬 목사_산타모니카한인교회, 김근수 목사_One Hope Church, 김영찬 목사_효사랑선교회, 김인구 목사_예수사랑교회, 박세현 목사_예수로교회, 성요셉 목사_소망장로교회, 이상훈 목사_사우스베이 주비전교회, 정종섭 목사_새영교회, P테드황 목사_메구미교회

문의 :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T.(213)382-5454, 김인구목사(준비 위원장) T.(213)700-4689, 성요셉목사(13기 진행) T.(818)331-2481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29〉

대학생 선교사 파송 후 교회의 변화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이집트에 대학생 선교사(SM)를 파송하여 1년간 사역하고 돌아온 후 이어서 현재 2명의 대학생 선교사를 1년간 중동의 1국으로 파송했다.

IS와의 전쟁으로 다소 위험 요소가 많은 그 나라들에 7명의 SM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원하여 나갔다. 그들의 결정을 부모들도, 교회도 만류하지 못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파송한 후 우리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교인 기도의 강화였다. 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같이 어우러져 드려지는 성도들의 연합중보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강하고 뜨거워졌다. 예배가 없는 그 땅에 들어가 날마다 예배를 올려 드리며 그 나라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주며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우리들의 SM들을 위해 새벽마다 교인들은 눈물로 무릎을 꿇는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 자식이다. 그들의 팀워크 승리를 좌우한다. 20세 나이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공항을 떠날 때 그들의 모습은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였다. 눈물 반 웃음 반으로 그들을 배웅하는 부모와 교우들 앞에서 너무도 평온하고 담담하게 떠났던 그들의 모습이 날마다 그려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지켜 주세요.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해 주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세요. 그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을 본다. 파키스탄의 영혼들, 터키의 영혼들, 이집트와 요르단의 영혼들, 팔레스타인의 영혼들... 지금은 SM들을 통해 1국을 품었다. 1국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의 교육부 자녀들은 자기들을 가르치던 대학생 교사들이 SM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다. 그것이 최고의 배움이었다. 그 교사들처럼 자신들도 장차 HSM(고등학생 선교사)을 거쳐 SM으로 나갈 소망을 갖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들을 배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매주일 밥먹고 헤어지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서부장로교회가 교회 창립 39주년을 기념하며 음악회를 개최했다.

서부장로교회 39주년 맞아 기념예배와 음악회

서부장로교회(담임 김선의 목사)가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김선의牧사는 “내년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난 39년 동안 베풀

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넘칠 때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위로자의 삶을 살자”고 권면했다. 기념예배 이후 드려진 음악회는 유스그룹부터 중장년층, 성가대의 멋진 화음으로 하나되는 시간이었다.

한편, 서부장로교회는 이날 오후에 김선의 목사님과 선교팀이 과테말라 지역에 5박 6일의 일정으로 단

기선교를 떠났다. 청소년들을 위한 VBS 사역 그리고 의료사역을 감당할 예정이다. 서부장로교회는 1998년에 과테말라 산골지역인 키체란 지역에 현지인 교회를 세운 것이 계기가 되어, 2007년에 몇 교회가 연합해서 초등학교를 지어줬다.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어 중학교가 필요함에 따라 서부장로교회가 단독으로 3년 동안 기도 끝에 중학교를 지어 헌당했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LA 상륙

CGNTV가 제작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6월 22일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에서 미주 지역 상영을 시작한 이래 뉴저지, 달라스, 애틀랜타를 거쳐 다시 남가주 LA로 온다. LA 이후에는 25일부터 시애틀에서 상영된다.

독일계 미국인 엘리자베스 조안나 슈윙 선교사의 조선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담아낸 이 영화는 미주 주요도시에서 CGV, AMC, 리갈시네마 등 극장 상영을 고집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10만 명, 미주에서는 벌써 1만 5천 명 관람을 돌파했다.

LA에서는 오는 11일 금요일 LA 다운타운 리갈시네마(10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에서 교계 지도자 초청 시사회를 여는 것으로 상영이 시작된다. 17일 상영이 종료되기에 관람을 원하면 서둘러야 한다. 문의) 213-763-6070(ex.3)

위탁가정 어린이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선물

한인가정상담소가 7월 한 달 동안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책가방’ 캠페인을 벌인 결과 총 300개의 책가방과 학용품들이 마련됐다. 지난 5일에는 한미은행과 오픈뱅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소를 방문해 책가방에 학용품을 가득 넣어 포장했다. 선한창지기교회는 교인들이 10개의 책가방과 학용품을 직접 구매해 상담소에 전달하기로 했다.

상담소는 지난 9일 LA카운티 아동보호국 산하 아태계 담당부서에 이 선물을 전달했다. 2017년 5월 말 현재, LA카운티 아동보호국은 총 3



자원봉사자들이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책가방과 학용품을 포장하고 있다. 아태계는 626명, 한인은 60~100명 만4084명의 19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중 인 것으로 추산된다.



새벽 시간 공항에서 SM을 기도로 배웅하는 모습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안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lore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레귤러

매직스레이트
\$120 up

레귤러

*단, 칼라만 하시면 \$40^{UP}

프로페셔널-엘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엘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이스라엘 하이파의 전경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39)

아름다운 항구 도시 하이파

하이파(Haifa) 항구는 이스라엘 최대의 항구다. 아쉬도트 항과 에일라트 항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국제무역항 중 하나다. 물이 깊어 연중 24시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하이파 항은 여객 및 화물을 모두 다루는데 연간 2천 2백만 톤의 화물을 부린다. 1,000여 명의 항구 노동자들이 일하며 크루즈 선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경우 항구 노동자 수는 5,000여 명으로 급증하기도 한다.

하이파의 역사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시를 카이파스(Caiphaz) 혹은 카이파(Caifa)로 불렀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름이 예수 활동 시기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카이파스에서 기원했다고 본다. 혹은 성 베드로의 아랍식 이름, 케파스(Cephas 혹은 Kepah)에서 기원했다고들 본다.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곳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란 점은 분명하다.

하이파는 선사 시대부터 어부들의 휴식처가 되어 왔다. 1100년 십자군이 하이파를 점령했을 당시, 하이파는 꽤 중요한 도시로 성장했다.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던 티베리아스로 접근할 수 있는 주 항구 역할을 했다.

하지만, 맘루크조가 통치할 시기에 하이파는 황폐화 되었다. 심지어 18세기에 해적들의 소굴로 악명이 높았다. 362년 비잔틴 시대부터 662년 아랍 시대를 거쳐 1099년 십자군 시대에 융성했던 하이파는 한때 침체 상태에 있다가, 1886년부터 시작된 유대인 귀환운동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유럽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닦을 내린 항구도시이기도 하다. 1930년에 이미 유대인 귀환운동의 핵심이 되었고 주변의 배후 농촌 도시들과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카르멜 산이 남쪽 기슭에 동서로 길게 누어있고 카르멜 산의 서쪽 끝자락에 놓여 있는 이 도시는 카르멜 산의 북쪽 능선과 바닷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전형적인 바닷가 산동네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에이커 향이 지역의 주 항구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 항구는 침적도에 의해 점점 막혀 들어갔으며 큰 배가 정박할 수 없었다. 하이파 항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은 시온주의의 아버지 테오도르 헤르츠였다. 그는 1898년 <Altneuland>란 책에서 이 마을에 대한 미래적인 저술을 기록하였다.

항구는 1922년 착공되어 1933년 10월 31일 공식적으로 완공되었다. 이 항구가 완공되자, 하이파 시는 급속도로 번창해 나아갔다. 1936년에는 도시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하이파 항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었다. 제1차 중동 전쟁 후 이스라엘 인접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 쪽의 국경을 폐쇄자 하이파 항이 이스라엘과 다른 제3국가들이 여주는 중대한 관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수피 파워를 갖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이파의 아름다움

하이파는 지중해성 기후가 특색이다. 여름은 건조하고 덥다. 겨울은 춥고 습윤하다. 여름 평균 기온은 섭씨 26도, 겨울 평균 기온은 섭씨 12도이다. 좀처럼 눈이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오지 않는다. 겨울에 간혹 섭씨 6도 이하로 내려가면, 아침 나절에 잠깐 눈이 오기도 한다. 우기는 10월부터 4월까지이다.

이민 온 유대인들이 본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삶을 살아가면서 추억을 잊지 못하게 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1965년을 기점으로 오픈 시티로서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최대 도시이면서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35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2012년 기준으로는 26,4800명으로 나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이스라엘 시민권자(인구의 9%)들이 이스라엘의 어느 도시에서보다 사이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공존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테크니온 공과대학교와 하이파 대학은 공과 계열 대학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 2005년에는 양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하이파에서 인상적인 것은 카르멜 산 서쪽 능선에 있는 엘리야 피난 동굴이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만나러 이곳을 찾아와서 촛불을 켜서 추모하며 기도하는 곳이다. 유대인들이 엘리야 동굴을 찾아온다면 기독교인들은 카르멜 산 서쪽 능선 주봉 쪽에 있는 스텔라 마리스(Stella Maris)라는 로마 천주교 교회를 찾는다. 이 교회는 19세기에 지어진 교회로서 교회 제단 전면에 동굴이 있고 이 동굴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을 마친 후 쉬면서 기도했다고 한다.

이 교회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가면 하이파 항구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대가 있고 케이블 카를 타는 곳이 나온다. 이곳에서 하이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멋있을 것이다.

하이파의 지하철

또 하나, 하이파의 상징은 지하철이다. 이스라엘에 지하철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것이다. 영국 위임 통치 시절인 1925년경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중의 하나로 카르멜 산 정상 부근에서 해안까지 여섯 정거장을 가지고 있으며 수직 지하철로 궤도 열차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전동차 두 개가 서로 교차하면서 운행되고 있다. 지하철의 총 구간은 1.8km에 불과하다. 지하철이 달리는 시간도 겨우 6분이다.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이 지하철은 파리광장, 솔렘본느, 하네빔, 골롬보, 마사다, 간하임 등 여섯 정거장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가장 짧은 지하철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한다. 산악 열차처럼 경사가 가파르고 기울어져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하학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역에는 스크린 도어도 없고 표를 사면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표를 사려면 역 플랫폼 입구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사면 된다. 필자는 지난 2000년에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너무 재미있어서 6개의 정거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즐겼던 기억이 있다. 단기선교 팀이 왔을 때는 이 지하철 정류장 입구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며 춤을 추고 전도하였던 즐거운 추억도 있다. 하이파에 가면 이러한 지하철을 타보는 것도 별미를 먹는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계속)

교회혁신교회

<p>LA 지역</p> <p>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일-17와 비몬트코너 주중사역-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세를 체험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와 영혼을 순종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연제선 담임목사</p> <p>LA 온하늘교회</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 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p> <p>박형천 담임목사</p> <p>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목요한국학교 토 오전 10:00-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회 오전 11:00-오후 6:00</p> <p>서건오 담임목사</p> <p>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담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p> <p>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김문수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0:30 E모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찬양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p> <p>김경렬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모예배 오전 10:00</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인 모임 오전 11:00</p> <p>김영구 담임목사</p> <p>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7-3009 C. (213) 215-8523</p>
<p>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p> <p>김중호 담임목사</p> <p>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p> <p>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p>	<p>주일 1부예배 (분양)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양) 오전 11:00 EM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양)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영양예배) (스페셜) 오전 11:0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믿음, 마음, 꿈, 열매</p> <p>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초콜릿, 초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회 불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박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과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사탄의권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티모임: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저녁 8:00</p> <p>강장규 담임목사</p> <p>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p> <p>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 434-1083 www.new2011.org</p>	<p>하느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p> <p>오늘 성경 읽으셨나요?</p> <p>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영성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민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n & 아리아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공회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전 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이 할-금-토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산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림회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전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일민예배 오후 1:30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일민예배 오후 1:30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파사데나, 라크렌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밖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왼쪽부터 가나다 순) 김노아, 서대천, 엄기호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앞두고 김노아 서대천 엄기호 목사 출마

임시총회는 8월 24일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회 대표회장 선거 후보 등록 접수가 마무리된 결과, 총 3명이 등록했다. 지난 2일(수) 첫 번째로 등록을 마친 김노아 목사(예장 성서 총회장)에 이어, 등록 마지막 날인 4일(금) 오후 엄기호 목사(기하성 여의도, 성령교회)와 서대천 목사(글로벌선교회, 흘리시즈교회)가 각각 등록을 마쳤다.

4일 등록한 엄기호 목사는 "한기총이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며 "하나님 중심의 체제를 구축해 한국교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목사는 "당선이 되더라도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아 큰 일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 한기총을 잘 다져 한기총이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등록한 서대천 목사는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며 "기도 많이 해 달라"고 전했다.

엄기호 목사는 1947년생으로 한세대 신학과, 리버티 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지도자 과

정 수료, 한세대 명예신학 박사 학위 등을 취득했다. 기하성 36대 총회장, 순복음 부흥사회 대표회장, 한세대 이사장, 한기총 공동회장 2회, 21·22회 한기총 남북 협력 위원장,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대표회장, 한기부 대표회장, 한국오순절교회협의회 대표회장, 교경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양평금식기도원 원장, 사단법인 굿피플 이사, 한국기독교복음주의총연맹 총재,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상임부총재, 성령교회 담임 등을 맡고 있다.

1963년생으로 연합기관 출마자들 중 젊은 축에 속하는 서대천 목사는 예장 합동 총회 소속으로, 글로벌선교회 회장 자격으로 출마했다. 고려대학교와 대학원을 거쳐 총신대 신대원을 수료했다. 현재 SDC인태내셔널스쿨 이사장, 글로벌선교회 회장, 흘리시즈교회 담임 등을 맡고 있다.

1940년생인 김노아 목사는 예장 성서 총회장, 한기총 공동회장,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기총 신천지대 책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대표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한기총 임시총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진행된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참석한 청년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

젊은이는 동성결혼 찬성? NO!

대학 청년들, 동성애 개헌 반대 위해 연대 기자회견

동성애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들이 '연대 기자회견'을 7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동성혼 개헌 반대 대학 청년 연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총신대, 장신대, 고신대 등 국내외 43개 대학 56개 단체가 함께 결성했다.

1부 기자회견에서는 청년들의 발언과 성명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발언한 홍은샘 학생(경희대)은 "이번 개헌안은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기 때문에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혐병상 살인과 상해, 동물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처벌조항들도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은샘 학생은 "동성결혼 반대는 근거 있는 합리적 차별이자 참된 인권보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동성혼에 찬성한다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착각으로, 동성결혼 허용시 발생할 의학·경제·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우려하고 있는지 간과하고 있다"며 "그래서 위정자들이 '헌법 개악'을 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시간을 내 찾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잔옥 학생(총신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의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에 앞서 상식의 문제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

위법 2조 3항 차별금지법위에 '성적지향'을 포함시켜 사실상 대한민국 동성애 합법화의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다수 이성애자인 국민들의 인권 역시 고려해야 함에도, 일부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을 수렴하는 시도는 일방적인 독재적 의사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백석대 남윤성 학생이 낭독했다. 성명서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로서, 1남 1녀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결혼과 가정의 갖는 숭고한 가치가 개인과 사회, 국가적으로 지극히 중대함을 인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적 문란을 조래하고 건강한 성윤리에 반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행태인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열어 줄 '성평등'과 '평등' 등 1남 1녀의 결혼 정의를 넘어서는 그 어떠한 표현도 대한민국 헌법 속에 결코 담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또 "앞으로 대학·청년들의 전국적인 연대망을 최대한 구축해 동성애와 동성혼 허용 개헌안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며 "서구 사회로부터 밀려오는 동성애 합법화 흐름을 당당히 차단하고, 1남 1녀의 결혼 전통을 지켜냄으로써 개인과 사회 전체가 누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영향력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발휘하며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조엘 헌터 목사 ©노스랜드교회

대형교회 목사, 노숙자 사역 위해 사임 노스랜드교회 조엘 헌터 목사 “교회 넘어선 일 필요”

미국 플로리다 주 롱우드에 소재한 대형교회인 노스랜드교회의 조엘 헌터(Joel Hunter·69) 목사가 사임을 표시했다. 2일 공개된 성명에서 이 교회 버논 레인워터 목사는 “조엘 헌터 목사님은 청렴하시고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이 가득한 분이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한 분이였다. 그분의 삶과 사역은 이 도시와 전 세계에서 예배와 봉사의 촉매제가 되어 왔다”고 전했다. 헌터 목사는 이같은 소식을 먼저 노스랜드 교회 임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교회 장로들과 협의하기 전까지는 사임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사임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 때까지 강단에서 설교를 지속할 계획이다.

언론에 의하면, 헌터 목사는 사임 이후

가난한 이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에 헌신할 계획이다. 그는 “모든 사람은 항상 평등하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지금의 시점에서 제도적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넘어선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엘 헌터 목사는 아이스링크장이었던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후 30년 간 교회를 이끌어왔다. 그는 기후변화, 이민 문제 등과 관련해 비교적 중도적인 견해를 표시해 온 복음주의 지도자로서, 복음주의에 기반한 기독교인들의 초당적 사회 참여를 주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 초기에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해진 기자



팀 켈러 목사

신앙으로 돌아오려면 가정환경 중요 팀 켈러 목사 “합리적 추리로만 믿음 선택하진 않아”

팀 켈러 목사가 “회의주의와 관련된 논쟁에서, 기독교 변증론자들은 ‘아무도 합리적 추리를 통해서만 믿음을 선택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켈러 목사는 최근 포커스온더패밀리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믿는 근거와 믿지 않는 근거가 철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는”를 설명했다. 켈러 목사는 “만약 당신이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들이 가진 신념은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공동체에 갔을 때 그 공동체가 당신을 잘 받아 준다면, 그들의 신념은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자주 일어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대화를 나누길 꺼려 하는 회의주의자들 만났을 때, 그가 상처를 입었거나 그가 속했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교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나쁜 경험을 가진 회의론자들과 대화할 때, 먼저는 뒤로 물러난 후 그들을 작은 컴퓨터처럼 대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도 단순히 앉아서

따져보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켈러 목사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갖는 것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켈러 목사는 “만약 가족이 건강한 기능을 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랑과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 곁에 반드시 머문다”면서 “이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옵션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실제적으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많은 이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켈러 목사는 2016년 출간한 ‘Making Sense of God’에서 기독교에 회의론을 가진 이들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의 첫 부분에서 저자는 세상이 갈수록 세속화되고, 종교가 없는 사람 혹은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성적 감성과 문화와 사회의 요소에 의해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전제를 증명한다. 강해진 기자

나이지리아 성당에서 총기난사 수십명 숨져

나이지리아 동남부 지역의 한 성당에서 6일(현지시간) 무장한 괴한 일당이 총을 난사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날 오후 6시쯤 나이지리아 아남브라주 오니차시 인근 오주불루 마을에 있는 성필립 성당에 괴한이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피습 당시 이 성당에는 약 1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으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 수십 명이 죽

거나 중경상을 입었다. AFP 통신은 영안실에서 적어도 12구의 시신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당 주변을 봉쇄한 채 달아난 범인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지만 현재까지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주 활동 지역이어서 이들의 소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해진 기자

강해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가 되어 3300 세계전용 이르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0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LA채플리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83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일오전기도회 7:00pm

수요예배기도회 9:00pm
금요오전찬양예배 8:00pm
(더듬날) 7:00am
토요일오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미예배 오전 11:30
영양장년부 오전 9:30, 11:30
영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대학부 오후 1: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양)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주일학교 11:00 AM
주일예배 화-금요일 5:30 AM
토요일 6:30 A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대학찬양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 매일 4배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금요공부 저녁 8:00
대학찬양예배 오전 11:00

허규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308 / us8291@gmail.com

주일예배(가) 주일 11:00a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주요예배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말씀어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종교개혁 주간 5:30 (월-금)
고등부 오전 11:30
한여름 오전 11:30
KMC대학찬양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1:00

P-kinder (Korean) 오전 11:00
Children (1-9) 오전 11:00
Youth (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EM 예배 오후 1:30 (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 (Youth)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월요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6: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리스펙티브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주혁모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금요일 오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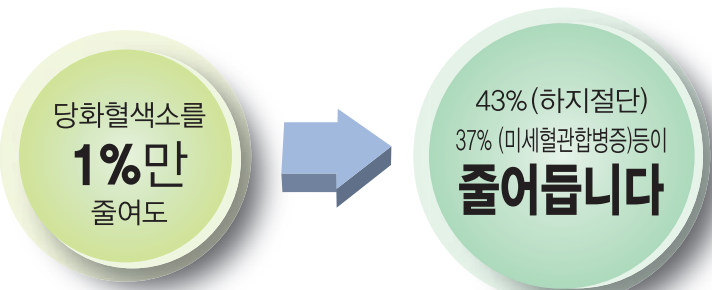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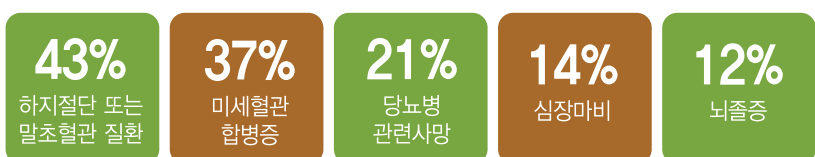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

Hyeon Soo Lim Released From North Korea

After more than two and a half years of detainment, North Korea frees pastor for health reasons



Rev. Hyeon Soo Lim, former lead pastor of Light Presbyterian Church in Toronto.

A Korean Canadian pastor who had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for two years and seven months was released on Wednesday over health reasons, a North Korean news agency reported.

However, the Canadian government has not yet confirmed any details of the release. It is also not yet clear when Lim will arrive in Canada.

"Rim Hyon Su [Lim Hyeon Soo], a Canadian civilian, was released on sick bail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entral Court of the DPRK on August 9, 2017, from the humanitarian viewpoint," North Korea's official news agency KCNA said.

Rev. Hyeon Soo Lim, 62, was detained in December of 2015 when he was in North Korea on one of his numerous humanitarian trips. He was sentenced to hard labor for life for committing "crimes against the state."

According to his family, Lim had been to North Korea more than 100 times.

"We are relieved to hear that

Reverend Lim is on his way home to finally reunite with his family and meet his grand daughter for the first time," Lisa Pak, a spokesperson for Lim's family, told CNN. "There is a long way to go in terms of Reverend Lim's healing. Therefore, in the meantime we ask the media for privacy as he reconnects with his loved ones and receives medical attention."

"We want to thank the global community for the continued prayers and support and we also ask that the world does not forget the people of North Korea," her statement continued.

Since Lim, who formerly led Light Presbyterian Church in Toronto, was detained, the Korean community in numerous locations held multiple prayer gatherings for his release, including in Canada, the U.S., and South Korea.

Lim's release came soon after a high-level official from Canada visited North Korea on Tuesday, hoping to intervene in his case.

"This is a truly joyous occasion," Suzanne Scholte, the chair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told the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a human rights organization focusing on persecuted Christians.

Meanwhile, Lim's health condition is currently unclear. Prior to his release, Lim's family expressed concern for his health as he was known to have lost a significant amount of weight, and to have complained of stomach pain.

Lim also has had high blood pressure, and his family was able to send him medication. However, Canadian Senator Yonah Martin expressed concern that Lim was not receiving the medicine "in the way he should," according to Reuters.



About 140 parents and teens attended the 'This Changes Everything Conference' hosted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on August 4.

'Parents, Disciple Your Children' 'Children, Obey Joyfully'

BY RACHAEL LEE

The teenage years can prove themselves to be a challenging season, for both the parents and teens alike. How ca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gospel transform and redeem that potentially challenging period?

Jacquelle Crowe, teen author of 'This Changes Everything,' and her father, Sean Crowe, set out to explore the answers to that very question at a seminar for parents and teens held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on Friday night.

"We wanted to host this because we believe it's so important for parents to disciple their children," said Chris Li, youth pastor at Living Hope.

The session, which lasted a little more than two hours,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with each part including brief words from Sean and Jacquelle Crowe regarding three topics, and then allowing the parents and teens in the audience to share their thoughts with each other after each of the talks, following discussion questions provided.

"Most people feel completely inadequate to care for their children," said Sean Crowe as he opened up the first portion, which focused on how the grace of God affects the lives and perspectives of parents and teens. "Raising kids who love the Lord is a difficult task."

"But just as we are saved by grace,

we are also sanctified by grace," he added. "Any success we have in parenting is due to the grace of God – so let's look to God."

Jacquelle Crowe mentioned the challenges that teens face in today's world, and said they "need grace" in two domains: living in the culture, and within the home.

In today's world, living as a Christian may require teens to stand apart from their peers, and perhaps be seen as "weird," she said. But she encouraged them to stand out as a Christian by speaking "words of life and truth," rather than gossiping; thinking of others first; living in purity; pursuing faithfulness; and living in a way that honors God.

She focused on how teens can honor their parents during the second portion of the session, and encouraged teens to obey their parents joyfully, and serve them willingly.

"Obedience is hard, but parenting is hard too," said Jacquelle Crowe.

"Jesus was a teenager just like us, and he also had to obey his earthly parents," she added. "He did that because that's how teens are supposed to be."

Teens should serve their parents, she continued, because "Christians' lives should be marked with service."

"They [parents] are fellow brothers and sisters, an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love and serve them," said Crowe.

Praying for parents, and seeking ways to make their lives better, are among the ways that teens could serve their parents, she suggested.

"Small, quiet faithfulness will be used to prepare you for bigger obedience in the future."

Meanwhile, parents have work to do as well, Sean Crowe noted during the second portion: teaching the teens what the Bible says; training them how to live; and praying for them.

When it comes to teaching the Bible or discipleship, parents may be tempted to think, "That's the church's job." However, Crowe said, "the primary responsibility is on the parents."

"Your kids need to see you, how you live, you need to be their example," said Crowe. "But you also need to see them – you're going to have to know your kids and what they're interested in."

The tasks seem many and difficult for both parents and teens – but Sean and Jacquelle Crowe reminded them of the hope and help they can find in God: primarily, in God's Word and in God's body, the church. The wisdom and guidance that parents and teens need can be found in the Bible, and in the community of the church, they said.

"I want to encourage you – you can begin again," said Sean Crowe. "Now is the time to begin again."

Volunteering Can't Substitute for Tithing, Most Pastors Believe; But Congregants Disagree

A majority of pastors don't believe volunteering at church can take the place of tithing, according to a recent study. But most of all Christians don't seem to share the same view.

The Barna Group study released on August 1 explored differences between pastors and Christians in general when it comes to giving. It found that while 67 percent of pastors strongly disagree with the idea that "it is okay for members to volunteer for their church instead

of giving financially," the general Christian population was more nuanced in their responses.

Only 10 percent of Christians strongly disagreed with the idea, and 11 percent somewhat disagreed. The largest proportion (31 percent) neither agreed nor disagreed. More than a quarter (29 percent) somewhat agreed that volunteering can substitute for financial giving, and 18 percent strongly agreed.

Barna pointed to the fact that

more pastors speak about volunteering than about tithing at the pulpit, and that that may be one reason for the gap.

"Only 39 percent of pastors say they or other leaders speak from the pulpit about tithing or giving to the church at least once a month (17% once per month, 22% multiple times per month)," the study states. "But more than six in 10 say they or other leaders speak from the pulpit at least once a month on the topic of volunteering (35%

once, 27% multiple times)."

The study also noted that those who were more generous financially to the church were also more likely to be generous with their time and energy in volunteering. For instance, 45 percent of those who give more \$2,500 or more annually to the church said they volunteered within the past week. Only about one in five (21 percent) of those who give less than \$50 to the church annually said the same.

Other aspects regarding giving

was explored in the study. For instance, when asked what generosity "always" is, Christians were more likely to say that their giving is "always" a "spur-of-the-moment" action (11 percent, compared with 2 percent of pastors), and "driven by compassion" (40 percent, compared with 30 percent of pastors). The largest proportion of both pastors and Christians said that generosity is always "a response to Christ's love" (66 percent and 47 percent, respectively).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 의사
LEE'S FUNERARIO
Un Mortuario Colonial De Empresas Ferrara

왜, 리스장 의사 일까요?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 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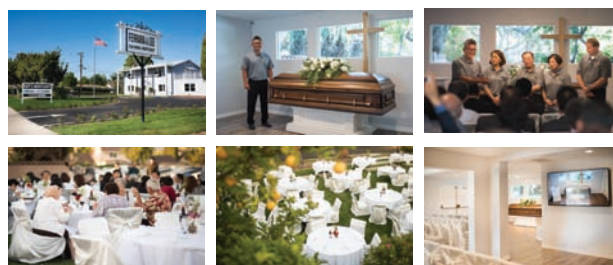
Since 1966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리스장 의사
더 가까이에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1966년부터 고객들을 모셔온 리스장 의사 100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넓은 파킹랏과 리뉴얼 된 쾌적한 채플 비디오 모니터를 비롯한 최신 시스템, 편리한 캐더링서비스와 아름다운 가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리스장 의사 뿐입니다 오렌지카운티에 계신다면, 리스장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리스장 의사에서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 장례서비스 / 장례보험 카운셀러를 모십니다
문의 (310)984-0888 / rchoi@leesmortuary.com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리스장 의사
Lee's Mortuary FD1164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missionchurch.org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cf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eeing What We Deserve

BY PATRICK CHO

"I don't deserve this."
This phrase, or at least the sentiment behind it, crosses my mind pretty often, though it shows up in two very different contexts. Sometimes it shows up when I am at my very best. At other times, it shows up when I am at my very worst.

When I am at my best, I look at my life and I'm so thankful for where I am and what I have. So I think to myself, "I don't deserve this..." I acknowledge that I'm doing better than I deserve.

Admittedly, there are times when I'll look at my circumstances or what's before me and I'll say the same phrase, "I don't deserve this," but with a heart that is bitter and with a tone that is begrudging. In these moments, I complain because I feel like I deserve and am entitled to something better.

Pastor and author Kevin DeYoung gives a helpful illustration when he says that every day, we can wake up and either put on the glasses of fairness or the glasses of grace. Each day, we have a choice as to how we're going to interpret and experience the world.

To put on the glasses of fairness is to experience life while believing that we are entitled to live a blessed life. We wake up with the assumption that we deserve first place, and so when we get anything less than that, we feel as though life isn't fair. We need to make sure we get what is ours; therefore, we're always calculating, sizing up, and feeling like we're owed something.

What will be the result for people who puts on the glasses of fairness on a daily basis? Life will end up being

a series of disappointments in which they are not getting the treatment they deserve, and because of it, they will leave behind a trail of broken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to put on the glasses of grace is to see life as a gift that is undeserved. Every day we start with the Biblical assumption that as sinners, we deserve last place, but here we are at the front of the pack (Matthew 19:30). We realize we deserve nothing (except God's wrath!), and therefore, we're thankful for everything. It's all God's grace.

For the person who puts on the glasses of grace, he or she will be a living example of Philippians 2:14-15, which says "Do all things without grumbling or disputing, that you may be blameless and innocent, children of God without blemish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twisted generation, among whom you shine as lights in the world."

This person will shine and his or her relationships will come alive because who doesn't want to be around a person like this?

This is not to discredit any real pain and injustice in the world. I acknowledge them, and I am not trying to brush that aside. We should be sensitive to injustices in this world. However, I do want to challenge a worldview that feels entitled to receive blessings from the start. It's easy for us,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in the church for a long time, to forget the concept of grace and fall back under a system of fairness in which we feel entitled to our wages based upon our years of service.

We see this fairness attitude in the Apostle Peter who says in Matthew 19:27 "See, we hav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you! What then will we have?" Peter basically says, "If there's anyone who deserves to be blessed, it should be us disciples!" And while the world may work under a works-based, wage-based, first-come first-served system, ultimately, that is not how things work in God's kingdom. In God's kingdom it's all grace!

Such amazing grace that saved wretches like us is not limited to our salvation. It's amazing grace that allows us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face a new day (Psalm 3:5). It's amazing grace when we're able to see or hear or speak (Exodus 4:11). It's amazing grace when the sun shines or the rain pours down on us (Matthew 5:45). It's amazing grace when we can laugh and find pleasure in life (Ecclesiastes 3:13). It's even amazing grace when life is tough because we know it is for our good (Hebrews 12:6).

As we seek to be gospel-centered Christians, let's not just pay lip service to the concept of grace, but rather, let's have a robust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mazing grace we have received and still receive on a daily basis. That means more often than not, the daily prayer of our hearts is "God... this is better than I deserve."

Patrick Cho is the youth group and missions pastor at Na Sung Church. This article has been re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SOLA Network website. SOLA exists to influence the emerging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Seven Common Reasons Churches Have a Dramatic Decline in Attendance

BY THOM RAINER

"Where did everyone go?"
A business executive asked that question when she returned to her church after some extended international travels. In the four weeks she was out, the attendance at the church had declined from nearly 600 to under 400. The attendance had plummeted in that short time by 35 percent!

To be clear, such rapid declines are aberrations. Most declining churches go through incremental, not dramatic, reductions.

We consider a church to be in dramatic decline when the average worship attendance drops by 20 percent or more in three months or less. What causes such unusual declines? Here are seven common reasons:

- 1. A scandal in the church.** The two most common are sexual and financial scandals. Either of those can cause immediate erosion of trust and send members out the door.
- 2. Sudden departure of a pastor or staff person.** I am familiar with a church where the average attendance dropped from 1,250 to 850 in just a few weeks when a malevolent power group in the church forced the pastor out.

The congregation never heard a reasonable reason for the departure because there was none. The church has not recovered.

3. Closure or decline of a major employer. Some communities are highly dependent on one or a few employers.

When any one of those employers close, people who are members of churches in the community will often depart rather quickly. I saw this reality transpire many times during the great recession and when several military bases closed.

4. The church changes its position on a major biblical/moral issue. When a church makes a major doctrinal shift, many members often exit quickly. That exit is often exacerbated if the doctrinal change is related to a moral issue.

5. A power group continues to wreak havoc in a church. The story is not uncommon. The same power group opposes any change again and again. Pastoral tenure declines due to the leaders' frustration with this group. At some point a large group in the church declares, "Enough," and departs en masse.

6. Another church moves close by. The new church or newly located

church offers ministries and programs the affected church does not have. Often these ministries are particularly appealing to families who still have children at home. Those families move to the new church to try to keep their children interested and excited about church life.

7. A highly contentious business meeting. These churches have typically experienced conflict for some time. The conflict comes to a boiling point in a business meeting. Large numbers leave due to anger, weariness, or both.

Admittedly, this level of decline is not common, but I am seeing it more frequently. It is my prayer that these seven reasons can also serve as seven warning signs.

It is incredibly difficult for any church to recover fully from such a massive exodus.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on July 31,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Thom.S.Rainer.

영혼의 진주를 사세요

| 소강석 지음 |

원색적인 복음 선포와 전도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사라져가는 시대
여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부흥성과 연합집회, 목회 생태계 복원 사역을 위해
온몸으로 포효한 한 목회자의 불꽃같은 메시지가 있다!
갈수록 영혼구원을 향한 열망과 전도의 동력이 소멸되어가는 시대 속에
그의 메시지는 부흥의 불꽃이 되고 파도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구원 초청과 전도 독려 설교의 완결편!

예수 마니아가 되라

| 소강석 지음 |

320면 / 13,000원

320면 / 13,000원

금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불린출판사 • 홈페이지 www.gumran.co.kr • 서울 중구 이화동 184-3 • TEL: 745-1007(내)

Wyoming Judge Censured for Views on Same-Sex Marriage Appeals to U.S. Supreme Court

A judge based in Wyoming who was censured for publicly stating her opposition to same-sex marriage has appealed her case to the U.S. Supreme Court on August 4.

Judge Ruth Neely, who served as a municipal judge for 22 years and as a part-time circuit court magistrate for about 15 years, was censured by the Wyoming Supreme Court in March 2017 for her comments to a reporter in 2014 saying that she believes marriage "is the union of a man and a woman,"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by her attorneys at 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In March 2015, the Wyoming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s and Ethics filed a complaint against Neely regarding her comments, and the commission recommended in February 2016 that Neely be removed from both her roles as municipal judge and circuit court magistrate. Neely then appealed to the state Supreme Court, which ruled against her in March 2017 with a 3 to 2 vote.

Neely was then required to solemnize all marriages or none, which led to her losing her magistrate position.

"The Wyoming Supreme Court said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pictured in March 2017. Ruth Neely appealed her case to the U.S. Supreme Court on August 4, 2017. (Photo: Phil Roeder / Flickr / CC)

that it had to punish Judge Neely to uphold 'judicial integrity' even though it recogniz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hat Judge Neely's comments harmed 'respect for the judiciary' or 'any person,'" said the ADF.

Neely's attorneys argue that the state of Wyoming "allows magistrates to decline wedding requests for countless secular reasons — because they refuse to perform weddings for strangers, they simply don't feel like marrying the couple, or they prefer to watch a football

game."

"But the state punished Judge Neely for saying that she would need to refer some wedding requests for a religious reason," the ADF stated.

The ADF also noted that Neely was never asked to solemnize any same-sex marriages, and that if she was asked, she would have referred the couple to another magistrate.

Unless an extension is requested, the state of Wyoming will file a response within 30 days, according to the ADF.

Catholic Charity Group Aims to Raise \$2 Million to Rebuild Iraqi Christian Town

A Catholic charity organization has set out to raise funds in hopes to rebuild a predominantly Christian town in Iraq that has been destroyed by ISIS.

According to the Knights of Columbus, which is spearheading the effort, the rebuilding of Karamdes, also called Karamlash, must happen within the next two months. Andrew Walther, the vice president of communications and strategic planning for the Knights of Columbus, told The Christian Post that the "next 60 days are critical" because if those who were displaced from their homes are unable to return within that time frame, they will leave the country "for good."

"Christianity is reaching a tipping point," Walther told The Christian Post. "We have been told in 60 days, if there

aren't signs of hope and construction and people starting to move home, if this process doesn't begin in the next 60 days that people will just start leaving in droves and Christianity in Iraq will reach the point of no return."

Since ISIS invaded parts of Iraq in 2014, numerous towns have been destroyed and taken captive by the extremist group, many of which were resided predominantly by Christians or other religious minorities. Some of those towns have been liberated from ISIS control since then, including Karamdes, but the popula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remains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 OCHA) some 3.4 million

people are internally displaced within Iraq as of June.

The Knights aim to raise \$2 million, which the group says will help bring "hundreds of families" back home to Karamdes, and estimate that it costs about \$2,000 to resettle one family. It will be partnering with the Archdiocese of Erbil for the effort.

"The terrorists desecrated churches and graves and looted and destroyed homes," Supreme Knight Carl Anderson said during an annual report at the Knights of Columbus 135th Supreme Convention. "Now we will ensure that hundreds of Christian families driven from their homes can return to these two locations and help to ensure a pluralistic future for Iraq."

Jordan's Lawmakers Vote to Repeal Law Compelling Victims to 'Marry the Rapist'

BY JESSICA LIM

Jordanian lawmakers in the lower house of Parliament voted on Tuesday, August 1, to repeal Article 308 of the Penal Code, no longer allowing sexual assault perpetrators to evade punishment for their actions by marrying their victims.

Article 308 of the Penal Code left perpetrators unscathed as long as they married their victims and did not divorce until after three years.

A leading activist in the movement against Article 308, Dima Barakat, stated that marriage, for the victim, is "killing this girl a thousand times a day, at least," adding that the perpetrator "took away her dignity, her honor, and took

away her life."

Because some places in Jordan still remain socially conservative, some lawmakers argued that the article actually protects victims from the social stigma that victims and their families face, isolating them from the community.

"Family honor" is deeply engrained within the culture that victims, who are usually girls between ages 15 and 18, often choose to go along with marriage to their perpetrators to expel the "shame" that comes with being a rape victim.

However, lawmakers decided to vote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government and a royal committee to scrap the amendment in its entirety,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from the Human Rights Watch.

This repeal of Article 308 works alongside a prior vote on an amendment that took place earlier this week that no longer allowed honor killings done "in a fit of rage," stated an Associated Press report.

These two actions together shut down loopholes for sexual assault perpetrators and rapists to get away with their actions of killing and rape.

With the passage of the repeal in the lower house, Article 308 waits to go through the upper house, and ultimately, to be approved by King Abdullah II.

"This is a victory for the women's movement and human rights movement in Jordan," stated Salma Nim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Jordanian 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ca.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al.org

ANC 세미나 공식 후원업체

GSI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무료 설치"

GSI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블랙박스과 함께 안심 운전하세요

1

Aitz SMVB-6100

- 컴팩트 실속형 (주차감시 모드 시 전/후방 모션 감지 및 충격감지를 동시에 지원)

\$150 전.후방
\$190 전.후방

2

Aitz ROAD

- 3.5인치 터치스크린
- 포맷프리, 고온 차단 기능
- 128GB까지 인식

\$220 전.후방

3

Aitz ALPHA

- 4.0인치 FHD 의 터치스크린
- 첨단 안전운전자원 시스템(ADAS)탑재
- 포맷프리
-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최적의 탑재위치

\$320 전.후방

4

Aitz RC-100

- 후진기어시 자동으로 주차영상을 보여주는 콤보형
- 4.0인치 터치스크린

\$320 전.후방

5

eCell e-FOCUS

- 본체 분리 2채널 초소형 카메라
- 스마트폰 연동기능 (모바일 앱 통해 녹화영상, 실시간영상, 충격영상 확인가능)
- 포맷프리
- 앱 무료설치 및 업데이트
- 스트릿 파킹도 안심하세요

\$320 전.후방

* 그외 상업용 차량 및 모터 사이클용 블랙박스 판매

전시 및 Warehouse
GSI Systems, Inc.
860 E. La Habra Blvd, #220A
La Habra, CA 90631

GSI 블랙박스 판매/설치 연락처
LA & OC : T(408)966-8595, (714)349-8131
GSI SYSTEMS INC. - DASHBOARD CAMERA COMPANY
유통처 (Benz, BMW, Audi 및 특수차량은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upon

기독교인 독자들만을 위한 혜택!
이 쿠폰을 지참하신 분들에게는
Micro SD Card 32GB 무료 증정

ACADEMIC YEAR 2017~2018년도



온누리 장학생 모집공고

신청기간: 6월 1일~10월 1일 제출마감: 10월 1일
신청접수 e-mail: ancsfug@gmail.com

자격 및 장학금 종류

- Korean American Christian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학업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 General Academic Scholarship
 - 2year Junior College Scholarship
 - 4year College/University Scholarship
 - Graduate School Scholarship
- 해외 한인선교사 자녀 장학금
선교사 자녀로서 미국내 대학교 학업 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ANC 온누리교회 website (<http://anconnuri.com/posts/4535>)에서 자세한 자격사항, 신청서 및 관련된 모든 서류를 download 받으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online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 또는 미비된 신청서는 선발과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모든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ANC 온누리 장학금은 수혜자의 특권이지 신청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어떠한 이익제기도 수용되지 않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 818.834.7000 / www.anconnuri.com

마르크스에서 예수님에게로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저자가 죽은 지 한참이 지나서야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은 <독일 이데올로기> 라는 책입니다. 1932년에 러시아에서 출판된 이 책은 두 사람이 집필을 마친 1846년에서 86년이 지나고 나서야 출판되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독일 이데올로기>를 읽어보면, 맞지 않는 예언들과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무관심한 변증법과 유물론적 역사관과 다른 철학자에 대한 뻑뻑한 비판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마르크스 스스로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주장은 형편없이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가 깊어질수록 분업과 착취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공산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자본가의 도구였던 국가는 말라 비틀어져 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에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농경사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국가가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업과 노동의 착취는 고사하고, 세상에서

간의 죄성에 대한 순박한 착각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1,800년 전, 성전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하며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는 또 한 명의 다른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당시의 성전은 대제사장과 그 성전에서 일하는 18,000명의 일꾼들과 관련된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회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성전에서 파는 제물과 바퀴주는 환전상의 수익은 모두 대제사장의 이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중심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제물로 팔 상품을 쫓아내고 환전상의 테이블을 엮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함은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보라 함이요, 동물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로 죄사함 받으라는 것이요,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난 자신을 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도전입니다. 부스러진 그리스도의 살과 그 사이로 흐른 피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코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가주처과 대표 오덕재 원장,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인간의 유한성 (시편 100:3-5)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고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인간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며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간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이렇듯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생명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에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렇다. 인간창조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명백한 사실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직 창조주만이 무한한 존재이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항상 스스로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자 노력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끝

없이 도전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진리들이 많이 세상에 남아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한성이란 우리의 모든 업적에서도 실제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이 바로 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한계가 없다면 스스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유한성을 지닌 피조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피

조물이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입장과 사상을 받아들여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다.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고등한 존재 즉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항상 인간은 죄를 범하며 무엇을 하든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오직 나의 부족함을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든 나의 삶이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성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던 존재라는 것이다. 오늘도 나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꿈꾸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기도하며 도우심을 사모하자. 그와 같은 인생이 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해 본다.

손맛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정기정 목사
샘물교회

저는 본래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 날카로운 낚시 바늘에 꼬물꼬물 뱀새나는 지렁이나 피흘리는 먹잇감을 피어 물속에 던지고는 할 일 없는 사람처럼 한참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제 성격과 맞지를 않았습니. 그러다 보니 낚시뿐 아니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어느날, 제가 야기던 청년이 ‘전도사님, 제가 낚시 배태워드릴테니 함께 가시죠’ 하고는 저의 뱀새까지 지불하고 저를 바다로 데리고 나갔습니. 그 배에서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선장님과 그 청년이 심심한 돌들을 낚아 올리는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 선장님이 큰 돌이 낚인 낚시대를 저에게 건넵니다. 저는 그 낚시대를 얼떨결에 잡았습니다. 그 때 ‘땀, 땀, 땀’ 물고기가 파이팅을 하는데 그 펄펄과

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낚시의 제자 만들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처럼 주저했던 그 어떤 청년들도 바다에서 ‘손맛’을 보는 순간 낚시에 미쳐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꼭 낚시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낚시를 사모합니다. 또 다른 청년을 친절하게 모임에 전도하여 가입시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전도, 기도는 공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때, 신앙을 이해할 수 없던 그 누구라도 복음의 증인되고 다른 이들을 제자 만드는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의 설계도를 주지 말고 바다를 사랑하게 만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예수님의 바다로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겸손과 순종의 신앙인격

베드로전서 5: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에서 베드로는 장로중의 하나라고 설명하면서도 모든 다른 장로들에게도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장로들이 절대로 교만하거나 어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섬김의 자세로 양 무리의 분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때 중에서도 젊은 신앙인들로 자신이 하늘나라 가기를 진정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격을 통하여 제복과 같이 겸손과 순종의 신앙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신앙인격 수상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기대에 쓰실만하다고 인정되실 때에 그를 높이 들어 쓰시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교만하고 언행이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당히 기피하고픈 대상으로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또 그 인생은 버려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 당할 때에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 교회 지도자의 마음가짐-고난의 증인

본문 속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 즉 목회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자는 영광의 증인이 아니라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당하신 그 모진 행패와 수난과 고난들은 제자된 신분으로 지내오면서 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때,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증거하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수모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고난의 과정을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듣는 사람들도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체험도 주시고 감동, 감화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증인의 삶을 성실히 산 사람들은 훗날 부활하여 영광 중에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게 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자격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2. 교회 지도자의 마음가짐-청지기의 자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 때는 내 양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 때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치도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발적인 의지와 사명을 앞세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팔거나 또 무슨 직분이나 사역을 빙자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나라에 부흥사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 몇 몇은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은혜전달의 사명의식보다 그들의 주머니 속 물질을 얻기 위하여 성경의 온갖 내용들을 악용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선 그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3절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분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양떼들의 신앙을 지도할 때 입술로만 교리적인 것, 사명적인 것, 또 의지적인 것을 훈련, 교육시키려 하지 말고 목자 자신의 생활로 본이 되는, 보여주는 설교에 힘써서 양 떼로 그 목자의 신앙생활을 보고 본받아 참 믿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목자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교회 지도자의 마음가짐-운유와 겸손

5-6절에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과 순종을 힘써 훈련하여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들어 크고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공작, 백작, 자작이 있고 후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으로는 공작이었습니다. 왕의 근친 중에 로드리게스라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직계후손이 없어 조카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로드리게스는 분명 자신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순종으로 백성을 섬기기 위한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왕의 자리에 마치 자신이 오른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상당히 위압적으로 건방지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포악하고 못된 짓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왕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생각하고 눈 여겨 보고 있었지만 전혀 왕의 재목이 아님을 알고 왕위 후보계열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왕의 자질을 배우고 계율을 배우며 열심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백성을 섬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틀림없이 왕위를 계승했을 것인데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말미암아 왕위 후보계열에서 배제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트리며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기에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술에 취해 가기도 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냥을 갔다가 눈이 많이 내려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 그만 낭떠러지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다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골짜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곳에서 인간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시작했습니다. 일국의 제왕이 될 꿈에 부풀었던 그가 평생 처음으로 대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에 스스로 위압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보잘 것 없는 존재이며 허약하기 이를 데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에 스스로 막막함에 빠져듭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 아닌 나로 잘못 행세하고 광패와 교만을 일삼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조금씩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함께 있던 사냥개가 주인을 종소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개를 따라 가보니 아주 조그마한 기도원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수도원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은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평생을 하늘나라 가기까지 자기 믿음을 알찬 결실로 채워가시기 위해 애써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와 함께 어떤 사람이 다가오자 쫓아나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 왕자라고도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길을 잃어버려 이곳 종소리를 듣고 찾아왔다고만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곳이 너무 누추해서 있을 만하냐고 해도 자기 같은 죄인이 장소를 탓할 이유가 없다고 답할 정도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이 터져나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형편은 제 탓으로 만들어진 결

과입니다." 하며 밤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먹을 것을 만들어 좀 드시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저는 그것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저는 계속 낮아져야 합니다. 제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어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며 사흘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 목사님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격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동안 왕궁에서는 사라진 사람으로 인해 많은 걱정 속에 있었는데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과 같이 이전의 로드리게스는 지나갔고 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격으로 겸손하며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은 아주 조용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정리하여 빈민촌에 나눠주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왕위에 올랐던 자가 병이 나서 죽기 전에 후임자를 세우는데 원로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로드리게스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원로원에서 모셔다가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데, 그런즉 겸손과 순종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쓰임 받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또 높이 붙들어 쓰실 재목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신앙인격을 온전히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FM91.5(SCA)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석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CD봉투+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선교 찬양 단원 모집
 • 단장 : 1명 • 기타 : 1명
 • 단원 : 12명 • 키보드 : 1명
 * 40~50대 남녀
 *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213)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MAKER FUN FACTORY Created by GOD Built for a Purpose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인기 상품 A형 스탠드배너 \$65 Stand X-Banner
 거치대포함 *사이드에서 영문선택 \$140 Retractable Banner
 \$160 (디자인 포함)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edia@gmail.com

신간 도서

하나님의 선교전략

김진성 | TnD북스 | 232쪽

저자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전략을 '흐름과 모으심'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성경 시대부터 16세기 종교개혁과 20세기 한국전쟁 등도 이러한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후 다소 생소한 용어인 '엘레티스(Electics)'를 통한 성경적 선교 방법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선교지 목회사역 승계와 관련해 한국 초기 장로교회의 사례를 살핀다. 무엇보다 "성경보다 더 좋은 선교의 기초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천 도서

루터의 교육개혁은 종교개혁 구현 위한 통로 중 하나

양금희 교수의 "종교개혁과 교육개혁"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개혁이나 신학의 개혁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새롭게 하면서 세상을 바꾼 사건이었고, 그것은 무엇보다 종교개혁이 시작한 교육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책 <종교개혁과 교육개혁>은 1부에서 종교개혁가들의 교육개혁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2부에서 위기에 처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육개혁 방향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종교개혁 과정에서의 교육개혁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오늘날에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루터와 칼빈의 교육개혁과 교육목회, 그리고 종교개혁기의 교육생태계 개혁, 코메니우스의 평화교육 등에 대해 살핀 다음, 오늘날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을 회복하는 교육, 만민제사장 개념을 통한 평신도교육' 등을 제시했다.

먼저 루터의 교육생태계 개혁에 대해 "그의 이신칭의 신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하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지만, 믿음이 중요해진 순간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졌고, 그와 아울러 믿음의 내용이 '이해하는 신앙'과 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해지게 됐다"며 "그의 만민제사장 개념은 계시의 자리를 교회에서 개인에게로 옮겼고,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워야 한다는 교육적 차원의 개혁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그의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의 개혁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전적 개혁이었고, 교육개혁은 그것을 구현하는 통로들 중의 하나였던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의 교육개혁 없이 통전적 개혁으로서의 종교개혁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역으로 그의 종교개혁적 정신 없이 그의 교육개혁은 개혁의 주동이나 분명한 방향성도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그의 교육개혁은 가정과 학교, 교회 전반을 아우르는 통전적 개혁이어야 했다. 저자는 "단순히 교육 방법이나 내용 같은 미시적 문제들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왜 가정이 일차적 교육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학교는 왜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하는지, 교회는 왜 교육하는 교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방향에 대한 개혁이었다"며 "이 개혁의 정신이야말로 각각의 교육



종교개혁과 교육개혁 양금희 | 예영커뮤니케이션 320쪽

명령 있는 말씀을 회복하는 교육'을 제시한다. 저자는 '생명력 있는 말씀 회복' 방안으로 ①교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운동(하나님의 교육 이야기) ②말씀을 육화하는 삶의 운동(예수님의 교육 이야기) ③말씀이 수단인 목적이 되는 운동(성령님의 교육 이야기) 등 3가지를 제안하면서 "도덕적·윤리적 가르침보다 성경 이야기 자체에, 말씀의 해석보다는 말씀 자체에, 성품과 엔터테인먼트보다 성경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가르침을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이 말씀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평신도교육 개혁에 대해선 "목사는 평신도를 언제까지나 교회의 보호나 간섭 아래 있을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여기거나 혹은 성장하더라도 교회 안의 충실한 일꾼으로 머물러주기를 원하는 입장, 즉 평신도를 목회하는 수단이나 대상으로만 보는 이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세를 받은 '평신도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목회적 사명을 수행하면서 동역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며 "예배, 전교, 봉사, 교육, 선교가 모두 평신도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흠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평신도목회'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쉬운 건, 루터를 계승하여 현대식 대학 교육의 초석을 놓아 '현대교육학의 아버지'로까지 불리는 종교개혁가 필립 멜랑히톤(Philip Melancthon)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저자 양금희 교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루터가 태어난 종교개혁의 본고장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전공으로 박사학위(Dr. Theol.)를 받았다. 이후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 중이다. 저자는 이 책의 모태가 된 <종교개혁의 교육사상>을 비롯, <근대 기독교 교육 사상>, <교회학교 진단: 침체와 부흥>, <기독교 유아 아동교육> 등을 썼고, <말씀으로 태교하는 엄마>, <미래세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의 새 모델들> 등을 공저했다. 이대용 기자

더 좋은 반쪽이 되는 법

릭 존슨 | 채천석 · 조미숙 역 | 그리심 | 277쪽

책 제목처럼, '성 차이'를 통해 결혼생활, 가정 이혼의 해법을 제시한다. 가정은 인간이 생산되고 양육되고 성장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성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 이혼이 발생하며, 부부 당사자와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릭 존슨이 제시하는 가정 이혼에 대한 통찰과 제안이다.



아장아장 나의 첫 기도

엘리나 파스칼리 | 서지연 역 | 64쪽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표현한 기도문이다. 부모와 대화하기 시작한 아이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기도문과 함께 적절한 그림을 배치했다. 부모들은 그림을 통해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아이들은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다. 부모들도 기도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 만큼, 아이들과 이 '순수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생활을 회복하고 신앙적 감수성을 되찾을 수 있다.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일 3,000불의 매출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아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 CA 90019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매편: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터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알칼리성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2017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해외투어

in Los Angeles & Orange County



김은호 목사
오른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
꿈이있는미래 소장



주성하 목사
다니엘기도회 팀장

진정한 교회 연합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목회전략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대상 목회자, 사모, 선교사 **등록비** 무료 **일시** 2017.8.28.(월)

강의자료, 간증집, 찬양CD,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등록방법 및 문의

→ 인터넷등록 www.danielprayer.org

→ 전화등록(컨퍼런스 본부)

1. 미국현지등록 · 213-284-9596 · 213-739-0403	2. 한국(컨퍼런스 본부) · 82-2-6413-4922~4924
---	---

→ 카카오톡 등록

카카오톡 친구검색창에서 다니엘기도회를 검색하신 후 친구추가하시고 참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⑤ '다니엘기도회'란? (www.danielprayer.org)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연합기도회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각 교회의 현장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현재 7,500여 개 교회 참여)

⑤ '꿈이있는미래'란? (www.coommi.org)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크리스천교육기관입니다. (현재 1,600여 개 교회 참여)

당일 일정

	로스앤젤레스(LA)	오렌지카운티(OC)
1부 등록 및 찬양	10:00~10:20	16:00~16:20
2부 목회 나눔의 시간 -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	10:20~12:00	16:20~18:00
3부 식사 및 사역박람회	12:00~13:00	18:00~19:00
4부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사역 소개	13:00~14:30	19:00~20:30
5부 한국교회와 LA한인교회를 위한 기도회	14:30~15:00	20:30~21:00

로스앤젤레스(LA)

시간 10:00~15:00
장소 Garden Suite Hotel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연락처 213-383-0000

오렌지카운티(OC)

시간 16:00~21:00
장소 나침반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연락처 562-691-0691